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. 11. 5.(목) 17:00

이형일 부총리, Fitch 연례협의단과 면담

- AI·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3% 중반 성장, 잠재성장률 반등 기대
- 재정건전성 큰 폭 개선,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성장·재정 선순환 강화 강조

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.5일(목) **국제 신용평가사 피치**(Fitch) **연례협의단***을 만나 **최근 한국경제 상황**과 **주요 정책방향**을 논의하였다.

* Fitch 연례협의단: 토마스 룩마커(Thomas Rookmaaker)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총괄
사가리카 찬드라(Sagarika Chandra)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

이 부총리는 **AI·반도체 호황**이 수출과 투자를 견인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가 **3% 중반 성장**할 가능성이 높고, **잠재성장률**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**반등**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. 아울러, 현재의 **경제 호황**을 **지속가능한 성장**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, 이를 위한 정부의 **주요 3대 정책 방향**을 소개하였다.

첫째, 정부는 **잠재성장률 제고**를 위해 **반도체**, **피지컬 AI**, **AI 데이터센터** 등 **3대 메가프로젝트**와, **미래성장동력 육성**을 위한 **7대 Seed**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 특히 **AI·반도체 호황**에 따른 **생산성 향상**이 **여타 산업**과 **내수 전반**으로 **확산**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**한국경제 성장기반**을 **지속적으로 강화**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.

둘째,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**산업·지역 간 성장 격차**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, **양극화 완화**와 **성장 성과**의 **확산**에도 **정책 역량**을 **집중**하고 있다고 밝혔다. **다양한 연구기관**과 **근본적 해결 방안**을 논의 중이며, 단기적으로 **주거·일자리·포용금융** 등 **3대 민생 프로젝트**를 추진하여, **청년 일자리 창출**과 **지역 성장기반 확충** 등을 통해 성장의 성과가 **국민과 경제 전반**으로 **확산**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.

끝으로, AI·반도체 호황에 따른 **세수 증가**를 **미래성장 투자**와 **재정건전성 강화**에 **효율적**으로 **활용**하겠다고 설명하였다. 특히 **미래대응기금** 등을 통해 **성장동력에 투자**하는 한편,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**상당 부분 적립**하여 향후 **대외충격 발생**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아울러, **성과 중심의 재정운용**과 **지출 구조조정**을 추진하여 **2030년**까지 **국가채무 비율**을 **50% 미만**으로 관리하는 등 **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**을 높이겠다고 강조하였다.

Fitch측은 **최근 한국경제 호황**이 일시적인 반도체 경기 사이클을 넘어 **구조적**으로 **지속**될 수 있는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. 이 부총리는 **인구 감소**와 **고령화** 등 **구조적 어려움**에도 불구하고, 대규모 설비투자 등 **적극적 성장동력 육성**과 지역·중소기업으로의 **AI 확산** 등을 통해 **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**와 **잠재성장률 제고**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

한편, **Fitch 연례협의단**은 11.3일(화)부터 5일(목)까지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, 한국은행, 한국개발연구원(KDI) 등 다양한 기관들과 **연례협의**를 진행하였다.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	책임자	과 장	황희정 (044-215-4710)
		담당자	사무관	원종혁 (gur2794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